



# PACHAPPA CAMP

## NO. 1

Pachappa Camp was the site of the First Organized Korean American Settlement founded by Dosan Ahn Chang Ho in 1905 at 1532 Pachappa Avenue, now 3096 Cottage Street. Dosan was Korea's most patriotic and dedicated reformer and pioneer known for his role in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Also known as Dosan's Republic, about 100 men, women, and children nurtured a community here through activities such as weddings, baptisms, births, English classes, and church services. Pachappa Camp, which included 20 wood-framed dwellings and a large community center that supported a Korean Labor Bureau, flourished until 1918. By 1920, only a handful of Korean families remained in Riverside.

1905 - 1918

이곳은 1905년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세운 미국 최초의 한인촌 즉 코리아타운의 효시이다. 당시 주소는 1532 파차파 예비뉴인데 지금은 3096 카디지 스트리트로 바뀌었다. 도산은 일제 강점기의 애국 계몽운동가이며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지도자이다. 도산 공화국으로도 알려진 이곳은 약 100여명의 남성, 여성 그리고 아이 즉 가족들이 함께 거주했던 곳으로 20여채의 가옥들이 판자촌을 형성했으며 직업 알선소도 설립되었다. 또한 문화회관에서는 결혼식, 돌 잔치, 예배, 세례, 그리고 영어 수업 등 각종 행사가 열렸다. 파차파 캠프는 1918년까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지속됐다. 1920년대에는 거주자 대부분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소수만 남게 되었다.

